

삼성-SK, 메디슨 인수전 “한판”

고부가 헬스케어 사업 강화 위해 ... 인수금액 3000억원 추정

삼성그룹과 SK그룹이 의료기기 제조기업인 메디슨 인수전에 가세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최근 사모펀드인 칸서스인베스트먼트가 가진 메디슨 지분 40.94%를 인수하기 위해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에 의향서(LOI)를 제출했다고 10월20일 발표했다.

SK그룹은 의료기기, 헬스케어 사업을 차세대 신수종 사업 중 하나로 삼고 본격 육성하기 위해 메디슨 인수를 추진키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도 JP모건에 메디슨 인수를 위한 LOI를 제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꼽고 있는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메디슨 인수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5월 헬스케어 등 신사업 분야에 2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삼성전자는 2010년 4월 엑스레이 장비 생산 기업 레이의 지분 68.1%를 인수하고 6월에는 중소병원용 혈액검사기를 출시하는 등 헬스케어 사업 육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0월18일 LOI 접수가 마감된 메디슨 인수전에는 삼성과 SK 외에 KT&G, 일본 올림푸스(Olympus), 네덜란드의 필립스(Phillips) 등 6곳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은 10월 중으로 본입찰에 참여할 후보기업을 선정한 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인수금액은 3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메디슨은 1985년 설립된 초음파 진단기기 전문기업으로 세계 시장의 7%를 차지해 GE, 필립스, 지멘스(Siemens), 도시바(Toshiba)에 이어 5위에 올라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20>